

아quem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나 때 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 제1독서

지혜 3,1-9

• 입당송

•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하였네.
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ㄴ-39

• 복음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9,23-26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겪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센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강복
하시어, 사도적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아캠] 주보 성인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 준비 9일 기도 (Novena to St. Francis)



10월 4일은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의 주보성인이신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기 보다 기도 자체였던 성인의 삶을 본받아 관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주보성인 축일에 각자 본당 미사에 참여하고 평화의 기도를 바치며 참다운 신심을 키워 나갑시다.

- ▶ 기 간: 9 월 25 일 ~ 10 월 3 일
- ▶ 방 법: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OFFICIAL'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상: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시: 9 월 27 일 (토), 20시 (UAE)
- ▶ 방법: 아캠 공용 줌으로 접속 (회의번호: 415-165-8183 / 비밀번호: 1004)



[UAE] '추석' 명절 위령 미사



- ▶ 아부다비: 9 월 27 일 토요일 12:00, 페리쉬 홀
- ▶ 두 바 이: 9 월 28 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 ※ 미사 지향은 당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종 레오 14세] 9월 기도 지향

9월: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께 사랑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동한인
AKCCME가
톨릭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2025 아캠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①



김종선 크리스토폴 (아부다비 공동체, UAE)



순교자 성월에 ‘이벽 세례자 요한’과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를 떠올리며

9월 21일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한국 방문 때 시성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9월 전체를 순교자 성월로 지정하여 103인의 순교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 성월이 되면 박해와 순교와 관련된 성지를 방문하곤 했던 기억이 나서,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 성인들을 기억해 보고자 짧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18세기 말부터 실학자들을 통하여 중국을 거쳐 천주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작은 기록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인간의 평등, 유일한 하느님, 그리고 제사 거부라는 부분에서 당시의 유교로 대표되는 조선 사회와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양반 사회를 위협하는 큰 도전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선 사회는 이러한 천주교를 사학이라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주요 박해를 가합니다.

- 신해박해(1791): 진산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이 처음으로 공식 탄압을 받음. 이승훈 등이 처형되며 시작됨.
- 신유박해(1801): 정조 사후, 순조 즉위 후 가톨릭 탄압이 극심해짐. 정약용의 형 정약전, 정약중 등이 희생되고, 주문모 신부 순교.
- 기해박해(1839): 헌종 시기 박해로,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 신부의 출현 전후. 중국인 신부 유방제 등 다수 순교.

• 병오박해(1846):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함. 최초의 한국인 사제의 순교로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의미.

• 병인박해(1866): 대원군 집권기 최대 규모의 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수천 명의 신자가 처형됨.

이러한 박해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중 103위 성인이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인 반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분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저는 감히 이벽 세례자 요한과 김범우 토마스, 이 두 분을 순교자라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말 <명례방 집회 - 을사 추조 적발 사건>, 명동 주교좌 성당

먼저 이벽 세례자 요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1756~1801)가 청나라 북경으로 사신 수행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천주교 관련 서적과 성물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이승훈은 북경에서 예수회를 통해 40일 동안 필담으로 교리를 배우고, 파리 외방전교회의 구베아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신부에게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1784년에 조선 천주교의 반석이 되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이벽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이들은 권일신 프란치스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형제들(정약현, 정약전, 정약용) 등 여러 실학자들과 함께 조선 천주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벽은 조선에서 본격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785년 명례방 사건(서울 명동 근처의 신앙 모임 발각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벽, 권일신, 정약종의 형제들은 모두 양반의 자제로 의금부로 압송되었다가,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서약과 함께 석방됩니다.

이때 이벽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아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을 매어 죽겠다고 협박하고, 또 이벽을 별당에 가두어 세상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에 결국 이벽 세례자 요한은 15일간 단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순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례방 공동체를 이어 그 터에 세워진 명동성당

김범우 토마스, 그는 천주교회의 출발점이었던 명례방(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부친의 집에서, 양반과 평민 그리고 남녀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신앙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785년 명례방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김범우 토마스는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갑니다.

김 토마스는 천주교 모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과 배교를 강요받았으나, 역관이라는 이유로 처형 대신 곤장을 맞고 고향 밀양으로 유배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지금의 구포 관아의 관비로 끌려갔고, 김범우는 고향 밀양에서 생활하다가 박해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압박, 그리고 곤장으로 입은 상처와 고통으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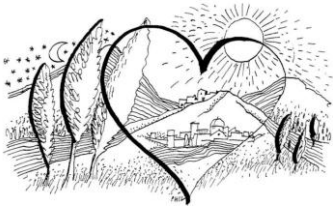
교회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공식적으로 '순교'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 천주교 첫 번째 희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를 '조선 최초의 순교자적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례방 사건이 100년도 지난 후인 1898년에 그 자리 위에 명동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명의 순교자들 기념 조각상, 서산 해미순교성지 기념관

이렇게 우리의 피로 얼룩진 천주교 역사에는 위대한 103위 성인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와 또 이름 없이 "십자가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이 거룩한 순교자 성월에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순교를 기억하며 잠시 묵상에 빠져 봅니다.





2025 창조시기 기도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 된 믿음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지금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창조세계에서, 또 저희의 참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탐욕과 파괴의 충동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구와 맺은 관계를 깨뜨렸음을 인정하나이다.

비옥했던 들판은 메마른 땅이 되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나이다.
풍요롭던 공동체들은 고통으로 물들고 땅은 부르짖고 있나이다.

사랑하올 그리스도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하며 평화를 주셨으니,
연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복돋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 온 세계 신앙공동체와 함께,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갖 갈등을 종식시키고
깨어진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 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피조물의 상처를 돌보고
세상이 입은 상처와 굳건히 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여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평온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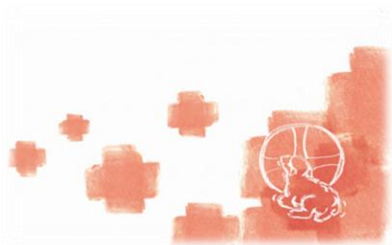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순교자 성월 기도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 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①

1.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병, 칼, 스푼,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2. 재활용 쇼핑백 사용하기,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하기
3. 일회용 생수NO!, 개인 물통YES!
4.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기
5.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공정무역제품'을 구입하기
6. 잠깐이라도 주정차 할 때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7. 공동 텃밭, 미니 상자 텃밭, 베란다 텃밭 등에서 내가 먹을 작물들을 직접 길러봅니다.
8.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9. 나 홀로 운전족 되지 않기
10. 포장지가 없거나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기, 선물할 때 포장하지 않기
11. 농업, 농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석탄 발작국 줄일 수 있는 로컬 식료품 구매하기
12. 친구, 가족, 동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기
13.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못생명들을 기억하며 쓰레기 만들지 않기
14.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멀티탭 개별 스위치 사용하기
15. 외출할 때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
16. 휴지보다는 손수건으로...
17.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난민과 환경을 위해 기부하기
18.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19.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대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20. 1-2 km 정도는 걸어서 다녀옵니다.
21. 목욕 횟수를 줄이고, 샤워 시간 줄이기
22. 단계별 채식 도전하기
 - 하루 고기 먹었으면 다음날은 쉬어주기
 -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어보기
 - 채식식당 찾아보기
23. 해마다 철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한번 산 옷은 오래 입기
24. 운전할 때는 평화의 속도로 달려요. 시내 50km, 고속도로는 100km 이하
25. 어쩔 수 없는 외식: 못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교회.상.식.팩.트.체.크 ✓

'성인' 은 '복자' 보다 높다?

순교자 성월인 9월, 우리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순례를 통해 성인들과 복자들을 공경하고 전구를 청하고 있지요. 순교자 성월은 우리가 기억하는 복자들의 시성이,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로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마음을 복돋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복시성이라고 하면 교회가 어떤 인물을 복자로, 그리고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덕행의 길을 닦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8항) 시복시성은 교회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정한 검증을 거쳐 진행되는데요. 시복시성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에게 복자, 성인의 순서로 칭호를 부여합니다. 시성을 위한 과정에 복자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 성인이 더 대단하고 높은 분이고, 복자는 그 보다는 덜 높은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자·성인이라는 칭호는 그분들의 공덕이나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자를 일컫는 라틴어 베아투스(Beatus)는 ‘복된, 행복한, 축복받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천국에 있는’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복직관(至福直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복직관이란 하느님을 직접 뵈는(直觀), 지극한 행복(至福)을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1코린 13,12) 이라고 말씀하시듯,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를 표현합니다.

성인은 의미상으로 거룩한(聖) 사람(人)을 의미하는데, 실은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일치를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복직관에 이른, 하느님 나라에 든 분들입니다.



124위 복자 초상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시성식을 하면 “○○이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시복식·시성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복시성을 하는 이유는 아직 지상교회를 순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분들이 보여준 완덕의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길 청할 수 있는 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187조)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시복시성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물들지 않아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영웅적인 성덕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복시성을 염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분들을 본받으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일입니다. 순교자 성월, 함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시복 시성 기도문』 중)

<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

소금 한 꼬집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젠가 그 손길을 받을 때
기꺼이 멈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